최병훈의 예술세계 : 영혼이 유희하는 미적 공간

바바라 맥아담 (Barbara A. MacAdam)

아트뉴스 부편집장 (Deputy Editor, ARTnews)

최병훈은 1980년대 초부터 위트와 매력, 불가사의한 균형감각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통해 디자인과 미술을 유연하게 연결 짓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조각과도 같은 그의 아트퍼니처와 오브제들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상적인 형태와 더불어 구성적인 면에서 복합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물질적 요소와 개념적 요소의 상반되는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최병훈은 특유의 시적 통찰력과 한국 전통에 대한 애정을 지닌 독창적 예술가로서, 모더니즘의 출현 이래 '기능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자인'의 의미를 찾아 다양한 길을 모색해 왔던 국제적인 현대 디자이너 중 핵심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답기만 한 예술이 아니라 기능을 지닌 예술로써, 그 기능 안에서 비로소 철학적 의미를 획득한다. 미술평론가 김복영도 언급했듯이, 최병훈은 디자인도 예술작품 못지 않게 표현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디자인은 한 사물과 사용자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사물이 속한 환경, 또는 자연과의 보다 포괄적 관계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김복영은 이에 대해 '최병훈은 그의 의자 하나를 야외에 설치할 때에도 풀, 나무, 예술가, 사용자가 상호 소통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 함으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상황을 제공한다. 최병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예술과 일상의 삶, 또는 생활 속의 다양한 현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적 가치관과 동시에, 그의 디자인에는 타고난 유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희성은 엄숙한 형식미와 대조를 이루면서 묘한 조화를 이루어낸다. 이런 특성은 동물과 곤충을 연상시키는 작품에서 기묘함과 익살스러움, 균형과 품위의 대조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표출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조화와 형태들을 창조해 내고 있다. 특히 그러한 작품들이 그룹으로 모여져 거대한 돌 위에 얹혀진 바나나와 같은 형태의 벤치 등에서 우리는 이런 유머러스한 순수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모든 것에는 자연의 세계와 샤머니즘에서 유래한 비가시적 영혼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국적 영감이 존재한다. 최병훈은 인간미와 자연미를 제외한 불필요한 다른 모든 요소를 제거한 엄숙한 형태미의 작품 속에서 '감정에의 호소'와 '자연에 대한 순응'이라는 샤머니즘적 측면을 공유한다. 또한 그는 여기에 유교와 도교의 지성주의를 포함시키는데, 도교사상에 근거한 '자연주의'는 그의 작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성이자 한국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김광명씨는 '한국인의 미의식과 미학적 이성의 문제'라는 글에서 '한국인에게 자연은 자기성찰을 위한 거울과 같으며, 모든 것을 본연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끊임 없는 생명을 전해주는 명상의 세계와도 같다.'고 했다.

최병훈의 초기 실험 작품들 가운데 '채집된 곤충'이라는 시리즈가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향수 디스펜서, 필기구 함 등의 용도를 지닌 실용적인 오브제들로, 곤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는 '제비꼬리 나비를 찾아 다니거나 도랑에서 가재를 잡으러 다니며 시골에서 보낸 그의 유년기 기억'이 담겨있다. 그는 곤충의 색채와 얇은 날개가 지닌 신비로운 느낌들에 대해 기록을 해 두었으며,

그 때 찾아낸 곤충의 특징들을 작품의 재료, 형태, 상징적 암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최병훈의 작품에는 재료가 지닌 고유의 물성, 시적인 감성, 부드러운 외형과 더불어 인위적인 표현이 없는 자연스런 표면처리 등이 비중 있게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바로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그는 겉은 거칠지만 미묘한 느낌이 우러나오는 자연석의 물성과 따뜻함과 매혹적인 매력으로 어느 재료와도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목재의 물성에서 그 특유의 온화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거침과 부드러움 사이, 재료 고유의 특성과 의도적 조형의 특성 사이, 자연스러운 것과 인위적인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음과 양의 지속적인 대화를 작품 속에 풀어낸다.

오늘날 작가로서의 최병훈의 위치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산업디자인 제품들과는 차별되는 자연에 대한 사고의 가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첨단과학적 소재들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한다고 믿어왔으며 자연석을 작품의 중심요소로 사용하는 다양한 작업 속에서 그 가치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왔다. 그의 작품에서 자연석은 상반되는 형태들과 물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을 시작으로 최병훈은 '태초의 잔상'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제작된 벤치들 중에 단풍으로만 제작한 '태초의 잔상 9978'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직사각형 베이스와 그 한 쪽 끝에 올려진 커다란 알 모양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이 작품을 보면 달걀과 고래가 연상되기도 하며, 부드럽고 둥근 알 모양의 형태는 마치 물위에 떠 있는 것과 같아 보이기도 한다. 두 부분 모두 인위적인 표현 없이 목재의 결과 직선 또는 곡선의 요소로만 이루어져있는데, 이 작품의 미니멀한 형태는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상반된 기하학적 형태 사이에서 근원적 긴장감에 의한 대비를 보여준다.

'태초의 잔상 9866'은 부드럽고 길게 늘어진 둥근 단풍 좌판이 거친 자연석 받침 위에 놓여있는 형식으로 대비효과를 한층 더 심화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의 구조는 실제의 길이는 같으면서도 서로 길이가 달라 보여 어떤 것이 더 긴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착시효과를 나타낸 그림과도 같아 보인다. 이러한 자연석 받침 위의 목재 상판구조를 갖는 작품들은 대립적인 요소들 - 심각한 것과 익살스러운 것, 잘 다듬어진 것과 자연 그대로의 것 - 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1990년대 초반, 최병훈은 '태초의 바람'과 '태초의 소리'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이 시기의 작업들은 알 바알토 (Alvar Aalto)가 만들어냈었던 물결과도 같은 부드러운 곡선과 담백한 선으로 그려내는 목재의 조형성 등에서 그만의 놀라운 예술성을 보여주며 보다 더 조각적인 작품들의 성향으로 발전한다. 이 시기에 제작된 한 테이블은 부드러운 목재 상판, 거칠고 울퉁불퉁한 하부 구조, 사다리꼴 덩어리 등 서로 상반되는 재료들로 이루어져 마치 재미난 구조물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풍부한 상징주의의 기질이 최병훈의 모든 디자인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특히 재료의 선택과 사용법, 다양한 재료들의 배열과 조합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속 바위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무덤가를 지키던 사자상을 한국적 양식의 단순화된 표현으로 재현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사자상들은 사악한 기운을 막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최근의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 가운데, 중앙이 커다란 달갈형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그 한 끝에 타원형 모양의 돌이 놓여있는 검은 옷칠을 한 기(器), 기울어진 긴 타원형 목재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벽걸이 거울, 중앙에 타원형의 음각된 수반을 만들어 금 조각 같은 꽃잎이 뿌려져 있는 옷칠 테이블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가 자연세계와의 교감을 보이며 모체의 자궁과 생명의 양육을 암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미술과 디자인의 이분법적 논리가 강조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감성과 지성 사이의 장력 속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 보는 이에 따라서는 대부분 일본 고유의 정형시 하이쿠(Haiku)나 수수께끼처럼 작품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읽혀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단풍나무와 자연석으로 제작된 최병훈의 테이블 작품 '태초의 잔상 07-247'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테이블에는 서로 형태가 다른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흡사,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의족과 같이 보이지만 그곳에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완벽한 균형미가 숨겨져 있으며 그 균형미의 배후에는 마치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술과도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 다리는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목재 상판의 관능미와 대조를 이루며 균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최병훈의 작품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디자인의 재료로써, 하나의 주제로써, 그리고 상징으로써 자연석의 사용에 대하여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의 작품에서 자연석은 연금술의 고대 상징인 마법사의 돌(the Philosopher's Stone)을 오늘날에 구현해 놓은 것과 같이 보인다. 이 마법사의 돌은 본래의 재료가 어떤 것이든지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 왔던 것이며, 이러한 인식에서 '마법사의 돌'이란 곧 인간의 완벽함에 대한 상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은 조각적인 그의 작품 콘솔테이블 '태초의 잔상 04-214'에서 각기 다른 세 부분을 동시에 분리와 결합이 가능토록 하여 작품을 완성하여 가는 미적 감성이 연금술적 인식을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거친 마감의 긴 받침목재 덩어리와 가운데 구멍이 난 한국 전통 엽전과 비슷하게 생긴 둥근 돌, 윤이 나는 단풍나무 상판을 쌓아 올린 형식으로, 특히 동전과 같은 모양의 돌은 자체의 역사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모두 제 고유의 언어를 지니면서 동시에 최병훈 고유의 언어로 집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 중 또 하나, '태초의 잔상 07-242'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느낄 수 있다. 무늬목 적층에 의한 곡면성형된 이 긴 의자는 공간 속에서 쉽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로 부양한 듯이 그대로 떠 있다. 원래는 발 받침이 있음직한 위치에 오직 하나의 돌 덩어리만이 놓여있는데, 첫눈에 이 돌은 의자를 바닥에 고정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다시 보면,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의자는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제대로 서있을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놓인 장치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작품을 통해 사물과 제작자, 사용자 사이의 즉각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의 알렉산더 폰 베게작(Alexander von Begasack)관장은 이러한 최병훈의 작품들이 지닌 힘은 그들이 지닌 유기적인 형태나 '고요함'뿐 아니라 '인간공학과 합리성'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덧붙인다면, 감성적 감수성, 또는 감각적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최병훈이 목재에 대해 지니고 있는 경의는 그 재료의 다양한 특성들을 실험하는 여러 방법들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는 목재를 휘어 공간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

며 떠 있게 하기도 하고 '다듬어 진 것'과 '다듬어 지지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보임으로써 작품 속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고 있다.

최병훈의 유기적인 형태의 오브제와 돌과 나무의 역학적인 상호작용을 보면 이사무 노구치 (Isamu Noguchi)와의 대화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고유의 표현 목적을 위해 나무를 찬미하고 구부리는 그의 기법에서는 알바 알토(Alvar Aalto)와의 교감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전통문화, 또는 타 문화와의 광범위한 대화와 암시는 스톤헨지(Stonehenge)를 비롯, 돌을 쌓아 올려 제작된 다양한 원시미술에까지 이르며, 늘씬하고 형태적으로 잘 다듬어진 목재 조각 테이블에서는 영국 현대 미술가 헨리 무어 (Henry Moor)나 바바라 헵워스(Barbara Hepworth)를 생각나게 한다. 최병훈은 우리에게 과거의 것들을 현재의 의미로 다시 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지않은 않는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다.

최병훈은 언제나 새로운 재료에 대한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1990년대에 목재와 금속, 페인팅의 결합을 실험했으며, "요즘 나는 새롭게 도전해 볼 재료로서 카본 파이버를 내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나의 작업의 중심에는 항상 나무가 있어왔다"는 말을 덧붙인다.

궁극적으로, 최병훈은 창조의 마법과도 같은 것을 믿는다. 그 창조의 마법에 의하여 작품들은 관조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 창조자의 미의식과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최병훈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들의 사이, 즉 자연과 인공, 동물과 인간 사이의 통합을 만나게 된다. 최병훈의 디자인이 지니는 예술적 정수는 그가 제작하는 사물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물들을 경험하게 되는 전후 관계의 상황과 우리가 그 사물들에 대해 떠올리게 되는 관련 지식과 이해에 따른 '존재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브제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미적 감각에 호소하여 소통한다면, 오브제의 기능은 그들의 신체적 친밀감에 의한 새로운 소통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소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깊이 있는 예술작품과의 소통은 의식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